



퇴원교육 프로그램이 미숙아 어머니의 모성역할 자신감,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권 희 경¹⁾ · 권 미 경²⁾

1) 강릉 아산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수간호사, 2) 관동대 간호학과 부교수

= Abstract

Effect of Discharge Education Program for Mothers of Premature Infants on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Parenting Stress

Kwon, Heekyung¹⁾ · Kwon, Mikyung²⁾

1) Head Nurse, Gangneung Asan Medical Center
 2)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wandong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a discharge education program on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ho delivered premature infants. The program provided them with information on childrearing and supportive educational nursing care. **Method:** This study was based on pretest-posttest nonequivalent nonsynchronized quasi-experimental design.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30 mothers who delivered premature infants at a general hospital in G city.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Maternity Confidence Inventory, Parenting Stress Index(PSI). **Results:** The first hypothesis that the mothers in the experimental group would undergo changes in maternal role confidence after the intervention was accepted, a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gap between the two groups($F=9.386, P=.000$). The second hypothesis that mothers in the experimental group would undergo change in parenting stress after the intervention was accepted, a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gap between the two groups($F=4.425, P=.380$).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Discharge Education Program was an efficient intervention method to boost the maternal confidence of mothers with premature infants and to decrease their parenting stress.

Key words : Discharge education program, Premature infants, Maternal role confidence, Parenting stress

주요어 : 퇴원교육 프로그램, 미숙아 어머니, 모성역할 자신감, 양육스트레스

교신저자 : 권희경(E-mail: hee-g@hanmail.net)

투고일: 2006년 12월 26일 심사완료일: 2007년 1월 24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won, Heekyung(Corresponding Author)

Gangneung Asan Medical Center

415 Bangdong-ri, Sacheon-myeon, Gangneung-si, Gangwon-do 210-711, Korea

Tel: 82-33-610-3663 Fax: 82-33-610-3111 E-mail: hee-g@hanmail.net

서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의 미숙아 출생률은 전체 출생의 8.4%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Shin et al., 2005),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발달로 미숙아의 생존율은 현저히 증가되고 있다(Bae, 2000). 또한 현대 의료기술의 발달로 입원기간은 짧아지고 퇴원은 빨라지는 추세이나 그에 따른 보호자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퇴원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Kim, 1997; Bae, 2000).

미숙아의 출산은 건강한 만삭아를 출산할 것으로 기대한 부모와 가족에게 예기치 못한 스트레스원이 되며,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의 입원은 아기의 생존 가능성, 합병증 발생 유무와 장기간 분리 등으로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야기시켜(Affonso, 1992), 이들 부모나 가족에게 불안, 죄책감, 절망감,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다양한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특히, 퇴원 후 가정에서 영아를 돌보는데 있어서 정상아와 다른 미숙아의 특성은 어머니에게 큰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는데, 미숙아는 신경학적으로 미성숙하고, 운동능력이 떨어지고, 잘 못 먹고, 잘 못 지 않고, 덜 수용적이고,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Gennaro, Brooten, Roncoli, & Kumar, 1993). 이 같은 특성은 어머니가 아기의 행동을 해석하기 어렵게 하고, 정상아보다 더 많은 돌보기를 필요로 한다(Lee, 1994). 따라서 미숙아 어머니들은 양육에 대한 정보를 더 제공받기를 원하므로 미숙아를 돌보는 전문인은 미숙아 어머니에게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해 미숙아를 긍정적으로 인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자신감을 갖고 미숙아를 돌보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Lim, 1996).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중재의 효과를 확인한 국내연구들을 보면, 퇴원 전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의 정보제공과 지지(Lim, 1996), 전화상담(Song, 2005), 교육과 지지(Han, 2001) 등은 어머니의 스트레스, 불안, 모성역할 자신감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였고, 정보제공·지지와 함께 어머니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일에 참여 후 중재의 효과를 본 연구도(Lee, 1999; Jong, 1999; Jang, 2004) 있었으나, 이들 연구는 퇴원 전 단 1회에 그쳐 아기를 실제 돌보도록 하였을 뿐, 반복적으로 실습을 병행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G시 지역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한 곳에 불과하여, 미숙아 어머니들이 미숙아에 대한 정보제공과 양육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적어, 퇴원 후 아기를 돌봄에 있어 불안과 양육에 대한 어려움으로 많은 전화상담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퇴원을 준비하는 미숙아 어머니를 위해 퇴원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퇴원교육 프로그램은 미숙아가 퇴원 후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기초로 구성되었으며, 정보제공과 수행을 통한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제시하여 미숙아 어머니의 모성역할 자신감 증진과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중재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퇴원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미숙아 어머니의 모성역할 자신감,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미숙아 어머니의 퇴원교육 프로그램이 모성역할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 미숙아 어머니의 퇴원교육 프로그램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연구기설

- 제 1가설. 중재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모성역할 자신감에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제 2가설. 중재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양육스트레스 변화에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퇴원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유사실험 설계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 소재 일 종합병원에 입원한 미숙아 어머니로 다음 선정기준에 합치하는 미숙아와 미숙아어머니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미숙아
 - 재태기간이 37주 미만이며 출생 시 체중이 2,500gm 미만
 -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7일 이상 입원 치료
 - 선천적 결함이나 중증의 합병증이 없는 단태 미숙아

- 미숙아 어머니
- 미숙아가 7일 후에 퇴원이 예상되며 어머니가 미숙아와 함께 거주하고 미숙아의 주 양육자이며
- 산후 합병증이 없고
-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미숙아 어머니가 직접 면회를 올 수 있고
-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미숙아 어머니

실험효과의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료수집 시기를 달리 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퇴원한 미숙아어머니 14명을 대조군으로, 2005년 9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퇴원한 미숙아어머니 16명을 실험군으로 총 30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처치

미숙아 어머니에게 먼저 퇴원교육 소책자를 배분한 후 신생아 집중치료실 내 모유수유실에서 어머니들과 둘러 앉아 연구보조원 1명이 미숙아의 특성, 아기돌보기, 아기의 건강문제들,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에 대해 교육한 후 궁금 사항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였다. 그 후 어머니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연구보조원은 직접 인형을 이용해 먼저 시범을 보이고, 미숙아 어머니들이 다시 한 번 배운 내용을 습득하도록 인형을 이용해 직접 해 보도록 하였다.

1차중재인 미숙아의 특성, 아기돌보기, 2차중재인 아기의 건강문제들,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의 각각 1회 실시되는 소요 시간은 면회시간을 고려해 오후 1시부터 40분간이었으며, 그 후 면회시간에 아기에게 수유하기, 기저귀 갈기, 안아주기를 20분간 직접 수행해 보도록 한 후 교정해 주었다.

3차중재인 퇴원교육은 퇴원당일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미숙아 어머니에게 퇴원시간을 고려해 오전 11시부터 20분간 시행하였으며, 교육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였다. 퇴원 1주후에는 4차중재인 전화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실시하여 개방형질문으로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었다. 1회 소요시간은 20분간이었다.

연구도구

● 모성역할 자신감

Pharis(1978)의 모성역할 자신감 측정 도구 13문항을 토대로 Park(1991)이 수정 보완한 35문항 도구를 사용하였다. 안위와 안전, 영아의 행동, 수유, 위생관리, 목욕시키기 및 기저귀 갈

기, 건강과 질병의 6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의 자신이 없다' 1점에서 '아주 많이 자신이 있다' 5점까지 측정하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3차까지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7 \sim .98$ 이었다.

● 양육스트레스 측정도구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이 개발한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Kim(1997)이 수정 보완한 35문항 도구를 사용하였다.

PSI는 부모가 자녀양육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그 근원에 따라 부모의 스트레스(부모영역), 부모와 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부모-자녀관계 영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아동영역)의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말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5점까지 측정하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3차까지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5 \sim .95$ 이었다.

연구절차

● 퇴원교육 프로그램 제작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선행문헌과 다른 여러 교육자료 등을 토대로 소책자로 된 퇴원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 아기돌보기 : 퇴원기준, 미숙아의 이해, 성장발달, 아기 안기, 수유하기(모유수유, 우유먹이기), 기저귀 갈아주기, 기저귀 발진, 목욕, 눈·귀·코·손발톱 관리, 실내온도 및 습도 유지, 미숙아의 기질 이해하기, 아기가 우는 이유
- 아기의 건강문제들 : 구토, 딸꾹질, 설사, 발열, 경련, 청색증, 빈혈, 아구창,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신생아 심폐소생술
- 퇴원 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대변양상, 예방접종, 추후 관리, 퇴원약

● 퇴원교육 프로그램 적용 프로토콜

- ① 1차 중재(60분) 퇴원 5-7일전 신생아집중치료실내 모유수유실에서 실시
- 주제 : 신뢰관계 형성, 미숙아 특성, 아기돌보기, 미숙아 퇴원준비
- 내용 : 상호소개 및 목적소개, 아기를 본 어머니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지지, 미숙아 이해하기, 성장발달 설명, 실내온도와 습도조절 설명, 미숙아의 기질 및 우는 이유 설명, 아기돌보기로 수유시키기, 기저귀관리,

안아주기, 목욕시키기, 눈·귀·코·손발톱 관리를 설명 및 시범(어머니가 인형을 이용하여 실습) 아기에게 수유시키기, 기저귀 갈기, 안아주기를 실제 해보기, 퇴원기준에 대해 설명, 미숙아 어머니 퇴원교육 프로그램 책자를 가정에 돌아가 읽도록 하여 퇴원에 대비케 함

- ② 2차 중재(60분) 퇴원 2-3일전 신생아집중치료실내 모유 수유실에서 실시
 - 주제 : 아기 건강문제, 응급 상황 시 대처방법
 - 내용 : 인사 나누기, 어머니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지지, 아기의 건강문제에 대해 교육 - 구토, 딸꾹질, 설사, 발열, 경련, 청색증, 빈혈, 아구창의 원인과 대처법,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 및 시범(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경우 - 어머니가 직접 인형을 이용하여 실습), 아기에게 수유시키기, 기저귀 갈기, 안아주기를 실제 해보기
- ③ 3차 중재(20분) 퇴원 당일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실시
 - 주제 : 퇴원 교육
 - 내용 : 아기의 현재 수유상태 및 배변양상 설명, 추후병원 방문일자와 예방접종 설명, 퇴원약물 투여방법 및 보관법 설명, 아기에게 수유시키기, 기저귀 갈기, 안아주기를 실제 해보기
- ④ 4차 중재(20분) 퇴원 1주후 전화상담
 - 주제 : 정서적 지지
 - 내용 : 미숙아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경청하며 의문점과 어려움을 확인하고 지지, 질문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 제시

● 연구보조원 훈련

퇴원교육 프로그램 프로토콜의 일치를 위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 근무자(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2명)는 연구 전 2회의 모임을 통해 프로토콜 중재 내용을 확인하고 통일시켰다.

● 연구대상자 선정 및 자료수집

- 실험군
 - ① 퇴원 전 7~10일(사전조사)
 - ② 퇴원 전 5~7일(1차 중재)
 - ③ 퇴원 전 2~3일(2차 중재)
 - ④ 퇴원 당일(3차 중재, 1차 사후조사)
 - ⑤ 퇴원 후 1주(4차 중재)
 - ⑥ 퇴원 후 4주(2차 사후조사)
- 대조군

자료수집은 실험군의 표집을 시작하기 전에 시기를 달리 하여 일상적인 간호만 시행되었으며 사전조사, 1차, 2차 사후조사가 실시되었다.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으로 분석하였다.
- 실험군과 대조군 집단 간의 동질성 검정은 χ^2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 가설검정은 중재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모성역할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 비교는 평균, 표준편차, Repeated measures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어머니의 연령, 학력, 직업, 종교, 결혼기간, 경제상태, 계획된 임신여부, 결혼생활 만족도, 가족 지지 정도 및 아기의 출생 시 주수와 몸무게, 아기 성별, 출생순위, 입원일수를 조사하였다. 실험군 미숙아 어머니와 대조군 미숙아 어머니간의 모든 일반적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2>.

미숙아 어머니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실험군 어머니의 연령은 30세 이하가 12명(75.0%), 31~35세가 4명(25.0%)으로 평균연령은 28세로 나타났고, 대조군 어머니는 30세 이하가 6명(42.9%), 31~35세가 8명(57.1%)으로 평균연령 29세를 나타냈으며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력은 실험군 어머니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가 각각 8명(50.0%)로 나타났고, 대조군 어머니의 경우도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가 각각 7명(50.0%)로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실험군 어머니나 대조군 어머니 모두 60.0% 정도가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였다. 결혼기간은 실험군 어머니의 경우 평균 4.4년이었으며, 대조군 어머니는 평균 2.5년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경제상태는 두 군 모두 월수입이 200만 원 이하가 가장 많았다.

계획된 임신이었는데에 대한 질문에서는 계획된 임신인 경우가 실험군 어머니는 15명(93.8%), 대조군 어머니는 14명(100%)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생활 만족도에서는 실험군 어머니가 만족한다 8명(50.0%), 대조군 어머니는 매우 만족한다 8명(57.1%)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가족지지 정도는 실험군 어머니와 대조군 어머니 양쪽 모두 도와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미숙아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으로 출생 시 주수는 실험군 미숙아가 평균 34주, 대조군 미숙아는 평균 33주였으며, 출생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mother of premature

Variables		Experimental			Control			χ^2	p
		N	%	Mean.	N	%	Mean.		
Age	Below 30	12	75.0	28.6	6	42.9	29.9	3.214	.073
	31~35	4	25.0		8	57.1			
Education	High school	8	50.0	28.6	7	50.0	2.5	1.440	.487
	Above college	8	50.0		7	50.0			
Job	House keeper	10	62.5	28.6	9	64.3	.254	.881	
	Officer	2	12.5		1	7.1			
	Professional	4	25.0		4	28.6			
Religion	Yes	7	43.8	28.6	10	71.4	2.330	.127	
	No	9	56.3		4	28.6			
Period of marriage	Below 1 year	5	31.3	4.4	6	42.9	2.5	1.440	.487
	Below 2~3 year	3	18.8		4	28.6			
	Above 4 year	8	50.0		4	28.6			
Salary	Below 2000000	7	43.8	28.6	8	57.1	.714	.700	
	Below 3000000	4	25.0		2	14.3			
	Above 3010000	5	31.3		4	28.6			
Planned pregnancy	Yes	15	93.8	28.6	14	100.0	.905	.341	
	No	1	6.3		0	0.0			
Satisfaction of marriage	Very satisfaction	6	37.5	28.6	8	57.1	2.449	.294	
	Satisfaction	8	50.0		6	42.9			
	So,so	2	12.5		0	0.0			
Support of family	Very supportive	3	18.8	28.6	3	21.4	.089	.956	
	Supportive	10	62.5		8	57.1			
	So,so	3	18.8		3	21.4			

<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remature

Variables		Experimental			Control			χ^2	p
		N	%	Mean.	N	%	Mean.		
Gestational age	Below 34wks	9	56.3	34.6	9	64.3	33.6	.201	.654
	Less than 37wks	7	43.8		5	35.7			
Birth wt	Below 2000gm	5	31.3	2126.5	6	42.9	1961.1	.433	.510
	Less than 2500gm	11	68.8		8	57.1			
Sex	Male	10	62.5	28.6	5	35.7	2.143	.143	
	Female	6	37.5		9	64.3			
Birth order	1st	8	50.0	28.6	8	57.1	.871	.647	
	2nd	5	31.3		5	35.7			
	3rd	3	18.8		1	7.1			
Hospital day	Below 20days	11	68.8	15.1	9	64.3	19.1	.067	.796
	Above 21days	5	31.3		5	35.7			

시 몸무게는 실험군 미숙아가 평균 2126gm, 대조군 미숙아가 평균 1961gm 이었다. 아기 성별에서는 실험군 미숙아는 남아가 10명(62.5%), 대조군 미숙아는 여아가 9명(64.3%)으로 높게 나타났다. 출생순위를 보면 실험군 미숙아와 대조군 미숙아 모두 첫째가 가장 많았으며, 입원일수는 실험군 미숙아는 평균 15일, 대조군 미숙아는 평균 19일이었다.

가설검증

미숙아 어머니의 퇴원교육 프로그램 중재 효과를 보기 위한 가설검증은 사전조사와 처치가 끝난 1차, 2차 사후조사

시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변화를 보기 위해 평균점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 미숙아 어머니의 퇴원교육 프로그램이 모성역할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제 1가설 '중재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모성역할 자신감의 변화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조사와 중재가 끝난 1차, 2차 사후조사 시에 모성역할 자신감의 변화를 보기 위해 평균점수를 비교하여 두 군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Table 3>.

먼저 실험군 어머니의 모성역할 자신감 평균점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아져서 사전조사 시기인 퇴원 전 7~10일은 2.57점, 1차 사후조사인 퇴원 당일은 3.31점, 2차 사후조사인 퇴원 후 4주에는 3.94점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대조군 어머니의 모성역할 자신감 평균점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아져 사전조사 시기인 퇴원 전 7~10일은 2.64점, 1차 사후조사인 퇴원 당일은 2.81점, 2차 사후조사인 퇴원 후 4주는 3.34점으로 가장 높았다.

즉 모성역할 자신감은 실험군, 대조군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증가 되었지만, 실험군 어머니가 대조군 어머니보다 모성역할 자신감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군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9.386, P=.000).

따라서 퇴원교육 프로그램 중재는 모성역할 자신감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 1가설 '중재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모성역할 자신감의 변화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 미숙아 어머니의 퇴원교육 프로그램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제 2가설 '중재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조사와 중재가 끝난 1차, 2차 사후조사 시에 양육스트레스의 변화를 보기 위해 평균점수를 비교하여 두 군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Table 4>.

먼저 실험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평균점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져 사전조사 시기인 퇴원 전 7~10일은 2.46점에서 1차 사후조사인 퇴원 당일은 2.15점으로 감소되었으며, 2차 사후조사인 퇴원 후 4주에는 2.14점으로 퇴원 당일 보다 는 약간 감소하였다.

한편 대조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사전조사 시기인 퇴원 전 7~10일은 2.02점에서 1차 사후조사인 퇴원 당일은 1.95점으로 감소하였으나, 2차 사후조사인 퇴원 후 4주에는 2.10점으로 증가하였다. 즉 실험군, 대조군 모두 양육스트레스는 퇴원 당일은 아기의 퇴원에 대한 기쁨과 흥분의 감정으로 입원 시보다 양육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 그러나 퇴원 후 4주에는 아기를 직접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부담감 및 신체적 피로로 대조군에서는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험군에서는 퇴원 후 1주에 전화상담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경청하며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지간호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는 약간의 감소가 있었으며, 두 군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425, P=.038).

따라서 퇴원교육 프로그램 중재는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 2가설 '중재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퇴원 전 3회에 걸쳐 단계적인 퇴원교육 프로그램으로 반복교육, 시범 및, 실제수행을 적용하고, 퇴원 후 1주에는 전화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지간호를 전략으로 병원에서 퇴원하여 가정에서의 적응을 돕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가운데 다른 추후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본 연구자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면서 미숙아 어머니들이 불안해하고 궁금해 하는 미숙아의 퇴원기준, 산통, 열성경련, 청색증,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및 신생아 심폐소생술의 내용을 독자적으로 제작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양육기술과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및 신생아 심폐소생술은

<Table 3> Effect of discharge education program for mothers of premature on maternal role confidence

Groups	7-10days before discharge (M±SD)	Discharge day (M±SD)	4weeks after discharge (M±SD)	F	P
Experimental(N=16)	2.57±0.66	3.31±0.70	3.94±0.63	Between group 5.799	0.01**
Control(N=14)	2.64±0.81	2.81±0.60	3.34±0.63	Between time 17.69	0.00***
				GroupXtime 2.07	0.13

* P<.05 ** P<.01 *** P<.001

<Table 4> Effect of discharge education program for mothers of premature on parenting stress

Groups	7-10days before discharge (M±SD)	Discharge day (M±SD)	4weeks after discharge (M±SD)	F	P
Experimental(N=16)	2.46±0.47	2.15±0.55	2.14±0.60	Between group 4.44	0.03*
Control(N=14)	2.02±0.50	1.95±0.46	2.10±0.46	Between time 0.99	0.37
				GroupXtime 1.18	0.31

* P<.05

실제로 인형을 이용하여 시범을 보이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후 교육내용에 첨부하였다. 또한 어머니들이 교육을 받고 직접 수행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어머니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본 연구에서 '중재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모성역할 자신감의 변화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즉, 퇴원교육 프로그램은 미숙아 어머니의 모성역할 자신감에 효과가 있었으며 또한 중재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신감 정도가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는 모성역할 자신감이란 구체적인 아기양육 경험과 더불어 기술이나 지식을 획득했을 때 높아질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Lee(1999)의 퇴원 전부터 퇴원 후 1개월까지 사회적지지 중재를 받은 미숙아 어머니가 그렇지 않은 미숙아 어머니보다 모성역할 자신감이 더 높았다고 한 결과와, Jang(2005)이 입원 2~3일 부터 퇴원 후 1개월까지 모성역할 증진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미숙아 어머니의 모성역할긴장, 양육자신감, 모성정체감에서 중재군 어머니가 모성역할 자신감이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퇴원 후 2주 동안 4회에 걸쳐 전화를 통한 정서적 및 정보적 지지간호를 실시하여 중재군 미숙아 어머니의 아기돌보기 자신감이 높아졌다는 Song(2005)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Cutrona & Troutman(1986)은 미숙아 어머니가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경우에 사회적 지지를 받지 않은 어머니보다 더 많은 아기돌보기 자신감을 보인다고 하였고, Jordan(1973)은 영아돌보기에 있어 미숙아 어머니 자신감과 만족감은 지지, 어머니와의 상담을 통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프로그램 교육을 통한 실제적 지지의 제공이 모성역할의 자신감에 긍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Jang(2004)의 연구에서는 미숙아 워킹북 프로그램 제공 후 퇴원 시 미숙아 어머니의 아기돌보기 자신감이 중재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어머니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는 퇴원 전 3회에 걸쳐 반복적인 교육 및 실습을 병행하였고, Jang(2004)의 연구에서는 단 1회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중재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 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중재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회 이상 지속적인 중재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모성역할 자신감은 실제적 기술 측면의 양육행동과 과업중심적인 활동을 통해 획득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퇴원 전 3회에 걸쳐 단계적인 퇴원교육 프로그램으로 반복교육, 시범 및 실제 수행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모성역할 자신감이 증진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미숙아 어머니의 모성역할 자신감 증진을 위해서는 이론적인 교육 및 시범과 함

께 실제 수행을 병행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교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재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즉 퇴원교육 프로그램은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었으며 또한 중재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아기돌보기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과 지지는 퇴원 후 직접 아기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육아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효과적인 중재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중재 프로그램 실시 후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단지 미숙아 어머니와 만삭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한 선행연구들이 있다. Bak(1990)의 연구에 따르면 미숙아 어머니와 만삭아 어머니의 역할전환에 따른 어려움을 조사하였는데 미숙아 어머니가 만삭아 어머니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Kim(1997)과 Kim(200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숙아 어머니와 만삭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하였을 때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미숙아 어머니는 생후 1개월 때 만삭아 어머니보다 미숙아 어머니가 심리적 고통과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겪는다고 하였다(Lynn, T. singer et al., 1999).

실제로 미숙아 어머니는 퇴원 당일에는 미숙아가 가정으로 돌아온다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양육스트레스는 다소 낮아질 수 있으나, 퇴원 후 아기를 직접 양육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양육의 어려움에 접하게 되면, 그로 인해 양육스트레스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숙아 어머니의 모성역할 이행과정에는 더 많은 정보제공과 지지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퇴원 전 3회에 걸쳐 단계적인 퇴원교육 프로그램으로 정보제공과 퇴원 후 1주에 전화상담을 통한 지지간호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는 감소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의 정보제공과 지지를 토대로 퇴원 후에도 어머니에 대한 지지강화와 양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도록 지속적으로 전화상담 및 가정방문을 통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지지간호를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퇴원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미숙아 어머니가

지각하는 모성역할 자신감,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간호중재에 적용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각 가설이 지지되어 실험군은 모성역할 자신감은 증대되고 양육 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미숙아 어머니의 퇴원교육 프로그램은 미숙아 어머니의 모성역할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중재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퇴원교육 프로그램이 간호실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퇴원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토대가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미숙아 어머니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미숙아 퇴원 후 1주로 국한되어 조사하였으나, 미숙아 퇴원 후 지속적인 가정 방문과 전화상담 추후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 본 연구는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조사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숙아를 양육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Charlotteville. 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ffonso, D. D. (1992). Stressors reported by mothers of hospitalizes premature infants, *Neonatal Network*, 11(6), 63-70.
- Bae, J. W. (2000). Recent advances of mortality, morbidity and outcome in very low birth weight infa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Perinatology*, 11(2), 131-141.
- Bak, M. R. (1990). *A comparative study of confidence for infant care between premature infant's mothers and fullterm infant's mothers & Difficulty and satisfaction by mother role transition*. A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Cutrona, C. E., & Troutman, B. R.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 Gennaro, S., Brooten, D., Roncoli, M., & Kumar, S. P. (1993). Stress and health outcomes among mothers of low-birth-weight infants.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5(1), 97-113.
- Han, K. J. (2001). Development of a home-based nursing intervention mothering program for low birth weight infa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Care Nursing*, 8(1), 5-24.
- Jang, Y. S. (2004). *Effects of a workbook program on the perceived stress level,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breast feeding practice of mothers of premature infants*. A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Jang, Y. S. (2005). Effects of a maternal role promotion program for mothers of premature infants on maternal role strain,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maternal identity,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11(4), 472-480.
- Jong, K. H. (1999). *An effect of planned nursing intervention on the stress, the maternal role strain, and the maternal role performance of mothers of premature infants*, A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Jordan, A. D. (1973). Evaluation of family centered maternity care hospital Program: Part I-Intro-duction design and testing.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al and Neonatal Nursing*, 2, 13-21.
- Kim, D. H. (1997). *Comparison of child-caring stress between fullterm infant's mothers and premature infant's mothers*. A master's degree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Kim, S. Y. (2005). *Recognition of preterm and fullterm infant's mother of infant temperaments and parental stress*. A master's degree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Gwandong University.
- Lee, I. H. (1999). *An Effect of social support intervention on emotion and confidence for child care in preterm mothers*. A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Lee, J. H. (1994). Perception and emotions of mothers of high-risk newborn infants. *Korean Academy of Nursing*, 24(4), 557-567.
- Lim, J. Y. (1996). *Effects of supportive nursing and information on stress perception and health status in premature infant's mothers*. A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Lynn, T. singer, Ann Salvator, Shenyang Guo, Marc Collin, Lawrence Lilien, M. D., & Jill Baley, M. D. (1999). Maternal psychological distress and parenting stress after the birth of a very low birth-weight infant. *JAMA. chicago*, 281(9), 799-805.
- Park, M. S. (1991). *A comparative study on confidence for infant care of rooming-in and non rooming-in mothers*. A master's degree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 Pharis, M. E. (1978). *Age and sex differences in expectation for parenting among couples in a first pregnancy and among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Shin, S. M., Jang, Y. P., Lee, E. S., Son, D. W., Kim, M. H., & Choi, Y. R (2005). Birth rate of low birth weight infants and very low birth weight infa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Neonatology*, 12(2), 233-237.
- Song, W. S. (2005). *Impact of supportive nursing on anxiety of premature mother and confidence for infant care after discharged*. A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